예수님의 발해 건국

(막15:1-5)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발해 건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발해 건국'
진짜 발해는 누가 세웠는지 다 아시잖아요?
발해라는 나라의 이름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북과 만주지역을 통틀어서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발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대조영일 것이고, 그 다음이 고구려유민일 것입니다.
고구려유민이라는 단어가 발해와 연관되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계승자로서의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고구려유민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유민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겠지만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뒤에도 그러나 그 백성은 남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조직은 없어져도 그 나라의 사람은 남는데 그걸 유민이라고 하고, 그 유민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발해죠, 물론 말갈족을 통합합니다마는 그 발해라는 나라의 지배층이 고구려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해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의 말일까요?
대조영이 고구려유민을 모아서 발해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발해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유민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놓으신 나라 안으로는 오직 세상유민들만이 백성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유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 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이 망해버린 거예요.
고구려백성이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이 망해서 없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세상유민이고 그렇게 마음에서 세상이 망해서 없어진 그 사람의 인격만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세상이 망한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내 마음에서 망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제 구실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망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 따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끝장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망해서 내가 세상유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끝장이 나버렸다는 얘기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갖고 와서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서 소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는 제 구실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소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에요.

세상유민이 된 겁니다.
마음에서 세상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유민을 모아서 영적인 발해를 건국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광경을 보면 참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참 간단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선 재판과정을 보면, 한 마디로 재판과정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어떤 거냐 하면, 빌라도의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완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고발된 내용의 죄목이 있고, 그 죄목이 재판장에 의해서 낱낱이 확인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재판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가지의 말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목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죄목을 확정지어야 되는 재판장인 빌라도 자신은 전혀 죄수로 서계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된 죄목들에서 마음이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스운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겉도는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산을 떨면서 예수님을 빨리 처리해버리려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죄목 밑에다가 다른 죄목들을 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의에서 지네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정한 것은 죄목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식민지 지역의 종교를 관대하게 수용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만 않는다면 그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 빌라도는 알지도 못할 여호와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고발을 해봐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죄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식민지 지역의 종교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목을 바꿔버립니다, 정치적인 죄목으로.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제국의 판도 안에서 어떻게 왕이 또 있을 수 있느냐, 로마정부를 전복하려는 혁명적 계획을 세우고 있던 자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혁명가이고 가장 현실적인 죄목이 뭐냐 하면 로마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죄목을 바꿔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도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도 그리고 혁명가라고 하는 죄목도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죄목도, 식민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말 그런 사안에 저촉되는 죄인이 있다면 이건 십자가형으로 곧바로 처형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로서 참으로 황당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유대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를 자기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그 왕을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너희의 왕을 숨겨둔 데가 어디냐?'고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곳을 말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필사항쟁을 해야지 빌라도에게는 그 왕을 잡아 죽일 죄목이 확정되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왕을 고발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넌센스지요, 넌센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지역 안에서 한 식민지지역의 총독이 될 수 있던 자라면, 이 자의 정치력과 정보력 같은 것은 고수 중의 고수일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 저항에 함께 합세했다면 유대

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이전에 벌써 총독 빌라도의 촉각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겠지요.
이미 걸려들었어요.
식민지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로서는 식민지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적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정보망에 예수님이 혁명가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 고수인 빌라도의 레이더망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되어서 부정적으로 감지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겉도는 겁니다.

빌라도의 촉각에 예수님이 걸려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인 각자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빌라도의 정치적인 촉각, 정치적인 촉각이라는 게 결국은 권력과 돈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 촉각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깁니다.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빌라도의 촉각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았고, 재판이 겉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죄목을 빌라도가 설득력 있게 자기 스스로에게 확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권력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에게 돈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권력과 돈이 정치의 생명이에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식민지를 유지하려면 세금이 걷혀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식민지에서 계속 일어나는 혁명, 반정부세력에 맞서서 권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촉각 속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정보가 없는데다가 예수님에게 돈이 집중된다는 정보가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집중될 때에 경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어 있는데,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경쟁의 대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입사동기들이 친하지만 경쟁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 자리는 다섯인데 입사동기는 20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 친구가 움직이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세상의 정치 9단인 빌라도가 볼 때에 어떠한 부정적인 움직임도 포착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왕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세상에서 정치 9단이 볼 때에 권력도 돈도 그에게 집중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권력도 집중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좋다는 돈도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왕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권력과 돈이 집중되는 왕이라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선민들의 왕이라는 얘깁니다.
선민이 백성인 나라의 왕이라는 얘깁니다.
어떤 사람을 선민이라고 합니까?
세상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믿는 마음에 자긍심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될 때에 돈 대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출세 못했지만 하나님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선택 받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답게 구실을 하려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내 마음을 잡아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구실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유민입니다.
이 세상유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빌라도의 촉각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의 촉각에 걸려들지 않는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즉,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나라를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의 촉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감지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만큼 세상유민입니까?
고구려유민이 발해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세상유민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망해버렸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전혀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유민이 되어야 예수님이 세우신 발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조영이 고구려유민으로 발해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발해는 오직 십자가 붙잡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죽어서 내 마음에서는 세상이 망해버려야,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

의 유민인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패배자처럼 돼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 패배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돈을 안 벌고,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이유는 패배자가 돼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느끼는 모든 기쁨과 행복의 양만큼 하나님이 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패배자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돈도 권세도 형통도 출세도 성공도 아닙니다,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세상은 망해버리고 나는 세상유민이 됩니다.
내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주실 뿐입니다.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사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 땅을 행복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지요.
이 땅에서 자식을 잘 길러서 덕 좀 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병장수하며 세상을 만끽하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유민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유민으로써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바로 정치 9단의 촉각과 모든 정보력으로는 도저히 감지 안 되는 나라, 빌라도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수없이 많은 빌라도들에 둘러싸여 살 것입니다.
이때 그 수많은 빌라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여 죽으므로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대해 망해서, 나의 인격이 세상유민이 되어 주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발해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